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강현화 · 연세대학교 교수

1. 머리말

국립국어원에서는 '99년 이후 50만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대규모 사전을 편찬한 바 있다. 이 사전은 '표준'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만큼 널리 보급되었고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서의 사전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 국민이 친숙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사전을 제공함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왔다.

그런데 국가는 왜 이 시점에서 다시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일까? 『표준국어대사전』은 그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내용 기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다시 사전 작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가 궁금해진다.

새로운 사전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국립국어원 측이 전하는 가칭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쉽고 살아 있는 사전'을 지향하며, 또한 새로운 사전은 '쉽고 편리한 국가 언어 지식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주목해 본다.

먼저 '쉽다'라는 문제를 풀어보자. 이는 기존 사전의 문제점에서 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뜻풀이나 검색하기 어려운 표제어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뜻풀이나 예문을 보고도 해당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는 언어학자나 전문가에게만 소용이 되는 물건이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살아 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현행 사전의 표제어는 정작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다수의 언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떠올릴 수 있다. 모국어에 직관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 사전을 뒤적이지는 않는다. 새롭게 생겨난 말이나 유행하는 말, 과거에 사용되었던 말,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말, 특정 집단에게만 사용되어 일반인이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말들을 찾아보게 된다고 보면 현행 사전이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편리하다'라는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쉽게 얹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사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 하면 떠오르는 '종이' 사전을 벗어나, '휴대 전화, 컴퓨터, 전자사전' 등으로 검색되는 사전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언어 지식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 보면, 결국 '지식 정보 사회'에서 넘쳐나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언어'를 매개로 전달되며 해당 정보의 신뢰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지식 생산과 보급, 유통, 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이제 국가가 주도하고 구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가 '사고의 그릇'이라면 우리는 이번에 발간되는 새로운 그릇에, 과연 21세기 한국 사회의 지식 정보의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것에 새 사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나랏말ᄊᆞ미 듕귁에 달아 문ᄍᆞ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ᄇᆡᆨ셩이 니르고져 홇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ᆷ 노미 하니

라 내 이를 위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 ᄌᆞ를 밍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
ᄡᅥ 수ᄇᆡ 니겨 날로 ᄡᅮ메 ᄠᅳᆫ한킈 ᄒᆞ고져 홇 ᄯᆞᄅᆞ미니라"

[출처] 훈민정음 서문(언해본)

새로운 사전의 의미를 훈민정음 서문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는 'ᄉᆞᄆᆞᆺ다(소통하다)'의 의미를 재해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종의 시기에는 쉬운 문자의 부재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작금의 시기의 '소통'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이는 범람하는 외국어로 인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소통의 어려움과 일상어를 넘나드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어휘로 인한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국적은 한국인이 되었으되 한국어에 미숙한 이주민 화자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뜻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 사전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소통의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쉽고 편리한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나아가 한국어와 문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한국어 학습자와의 소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마땅히 국가의 의미 있는 문화 사업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2.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차례로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현행 사전은 언어학적 연구 결과에 기댄 채 비전문집단인 일반 국민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뜻풀이를 예로 든다면, 현행 사전은 지나치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뜻풀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이나 식물, 곤충 등의 표

제어 기술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지나치게 백과사전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전문적 지식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예 1) 멸구 (명)
멸굿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2mm 정도이고 몸의 색깔은 녹색이며, 배와 다리는 누런 백색이다. 긴 마디가 있는 주둥이가 있고 홑눈은 겹눈 밑에 있으며 보통 두 개이다. 성충, 애벌레 모두 농작물의 해충이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시베리아,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벼멸구. (Nilaparvata lugens)

둘째는 뜻풀이의 순환성으로 인한 모호함이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유사한 단어 간에는 서로 순환적인 뜻풀이가 제공되고 있어서,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이라고 해도 뜻풀이만으로는 해당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외국인들이 뜻풀이만으로 해당 어휘를 이해하고자 했을 때는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 2) 아름답다
「1」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2」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

예 3) 멋있다
보기에 썩 좋거나 훌륭하다.

예 4) 훌륭하다.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사전을 찾는 또 다른 이유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 줄 단어를 찾기 위함도 한 부분을 이룬다고 본다. 즉, 새로운 개념을 명시해야 하거나 새롭게 차용된 개념을 명시해야 할 경우, 떠오르는 단어들을 검색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자리한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줄 어휘를 고른다고 보면 현행 사전이 가지고 있는 유사어 변별의 한계는 아무런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언어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사전 사용의 어려움은 표제어의 목록에서도 드러난다. 보통의 한국인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터'를 분리해서 생각해 내지 못한다. 띄어쓰기에도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할 텐데' '할 테다'를 분석하여 '터'를 분리해 내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예 5) ㄱ. 시장할 텐데 어서 드세요.
ㄴ. 내일은 꼭 갈 테다.

하지만 정작 사전에서의 기술은 아래와 같다.

예 6) 터 (의존명사)
「1」 ((어미 '-을' 뒤에 쓰여))'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내일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시장할 터인데 어서 들어라./나는 내일 꼭 극장에 갈 터이다.
「2」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터수[Ⅱ]. ¶ 사날을 굶은 터에 찬밥 더운밥 가리겠느냐?/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그는 겨우 역에 도착했지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는 터였다./가려던 터에 그가 먼저 찾아왔다./마침 그들이 막 떠나려던 터였다.

과연 일반 한국어 화자들의 몇 명이 현행 사전에서 '터'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듯 언어학적 분석에 근거한 사전의 목록은 실제적으로 비전문

가인 사전 사용자에게는 어렵고 찾아내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것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많은 어휘들을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며 분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어미나 개별 조사에 대한 의미 기술에 비해 결합된 문형이나 결합된 조사의 의미나 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미약하여 사용자의 직관에 친숙한 언어 단위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예문의 문제이다. 현행 사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문들은 많은 부분 문학 작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의 예문들은 그 가치의 문제를 접어 둔다면, 살아 있는 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제성을 가진 자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예문들을 통해 해당 표제어의 의미나 용법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도 역시 표제어의 문제로 현행 사전은 문어에 대비되는 구어, 일상어로 편입되기 시작한 다수의 전문어, 비표준어이지만 넓게 사용되는 신어나 유행어의 목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장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어 화자들의 사전 사용의 목적을 가늠해 본다면 이미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한 확인보다는 새롭게 접하는 단어의 의미나 용법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는 사전의 형식이 가지는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사전은 종이 사전의 형태를 웹상에 올려놓은 형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어휘간의 상호 관계가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주로 글말에 의존한 상태로 웹 사전으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그림 정보와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하이퍼텍스트의 장점을 살린 역동적인 정보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행 사전은 종이사전을 변환

해 놓은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새로운 사전의 발전 방향

앞장에서는 현행 사전의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 해서 새로운 사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새롭게 추구할 사전의 방향은 어떻게 가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향후 사전은 신뢰성과 공공성을 지닌 사전이 되어야 한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지식 사전을 표방한 이상, 해당 사전에서 제공되는 지식 정보의 수준은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 주도 연구 사업의 결과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사전 편찬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 발간을 비롯하여, 국어 순화 자료집, 신어 자료집 구축, 전문 용어 정비 사업, 쉬운 문학 작품 어휘 조사 연구, 외래어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한국어 교재 분석 등), 방언 구축 결과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언어 지식 대사전의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 정보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의 사전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매체(시각 자료 및 동영상 등)를 활용한 사전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는 쉽고 체계적인 풀이를 보완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즉, 이미지, 삽화,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공과 지식 정보의 검색 및 저장을 제공함으로 해서, 지식의 확산 과 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참여형 사전을 지향해야 한다. 즉, 언어를 매개로 하여, 대중화된 전문적 지식의 통합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하는 참여형 지식 사전 구축을 필요로 한다. 신뢰성 있고 정제된 언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비전문가인 국민 혹은 전문분야별 전문가에서 사전 집필 참여를 개방하여, 폭넓게 지식을 공유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정제된 지식 정보 구축을 쌓아 가야 할 것이다.[1)]

넷째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화자와의 소통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어원의 계획대로라면, 주요 어휘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안에 20개 언어로 번역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과의 소통의 장을 열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간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시작된 우리 문화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향후 다가올 국제화 사회를 준비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언어 간의 소통은 국내에만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적인 정보 교류로 이어져,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과의 소통으로도 발전해야 한다. 한국어를 매개로 다른 언어를 들여다보고,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그릇을 새로운 사전이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물론 신뢰성을 확보한 공신력 있는 정보와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할 표지에 대한 논의가 추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